

[현대 기록학의 이론과 사상 - 2018년 5월 20일 단독방 보강 수업 내용]

2018년 5월 20일 오후 9:02, 노명환 교수님 : 여러분들이 개념적 구성이라는 것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 보기에 좋다 했잖아,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철학적 기호학적으로 쉽게 더 살펴 보게.

2018년 5월 20일 오후 9:04, 노명환 교수님 : 지난 번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라는 것은 언어가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거꾸러 이야기 하면 언어가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규정한다는 말도 되겠어. 언어게임 이론이 포함하는 측면이야.

2018년 5월 20일 오후 9:06, 노명환 교수님 : 개념적 구성에 관한 것인데, 무슨 말이나면, 위안부 할머니의 기록은 비극의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고, 미래의 세 시대를 위한 이정표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표현이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지.

2018년 5월 20일 오후 9:06, 노명환 교수님 : 이 말 이해하겠는가? 더 설명할게. 우선 대답 부탁.

2018년 5월 20일 오후 9:07, 안소연 : 네 이해했습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9:07, 심은경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07, 심서영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07, DoSoon*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07, 박시현 : 기록에 대한 기술 자체가 그 기록의 의미를, 개념을 새롭게 구성해나간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

2018년 5월 20일 오후 9:08, 김다빈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08, 지수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08, 회원님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08, 김부미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08, 양준호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08, 이혜란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09, 노명환 교수님 : 오케이. 내가 개념적 구성 설명할 때 예를 들었으니. 병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벌써 반절마셨네. 아직도 반절밖에 못마셨네. 언어가 상황을 결정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언어는 인간 인식의 표현이고.

2018년 5월 20일 오후 9:09, 심은경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10, Psh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10,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언어는 퍼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식 작용의 요소라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었어. 나중에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언어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모든 것은 언어의 표현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 포스트모더니즘 사고의 원조가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이라는 것이지.

2018년 5월 20일 오후 9:11,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이 비트겐슈타인에서 큰 영향을 받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후설과 하이데거를 볼 수 있는데.

2018년 5월 20일 오후 9:13, 노명환 교수님 : 우선 하이데거 해석학을 이야기 할게. 그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인간의 인식에 의한 것이라 보고, 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언어라고 보았어.

2018년 5월 20일 오후 9:15, 노명환 교수님 : 고대에서 부터 내려오는 존재론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인식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실제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이야. 그런데 칸트는 모든 존

재는 인간의 인식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했어. 그것이 칸트의 인식론이지. 그런데 하이데거는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아 그 모든 인식을 언어를 통해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는 언어는 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사유의 집'이라고 했어.

2018년 5월 20일 오후 9:17, 노명환 교수님 : 위안부 할머니에 관한 사진을 두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이정표다'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식 작용의 결과인데, 그 인식은 언어로 이루어지고, 이 언어는 그 인식의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2018년 5월 20일 오후 9:19, 노명환 교수님 : 6월 1일 컨티뉴엄 이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텐데, 이 이론은 이러한 하이데거 이론을 기록학에 도입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2018년 5월 20일 오후 9:20, 노명환 교수님 : 언어에 의한 인식 체계 속의 존재, 특히 인간은 시간의 조건 속에 존재해.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2018년 5월 20일 오후 9:20, 노명환 교수님 : 끊임없이 개념적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지.

2018년 5월 20일 오후 9:21, 노명환 교수님 : 기록이란 언어로 표현되는 인간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시간 (공간의 조건이 포함)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2018년 5월 20일 오후 9:24, 노명환 교수님 : 자신의 인식이 언어로 나타는 것. 그것을 그는 그의 해석학 이론으로 정립해. 그러니까 말로 해석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영어텍스트를 한국어로, 또는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 인간의 인식체계가 언어로 존재를 규정하는 것 (그러한 인간과 세계의 현상을 일컫는 것이야).

2018년 5월 20일 오후 9:24, 노명환 교수님 : 그래서 하이데거의 해석학은 달리 표현하면 개념적 구성이야.

2018년 5월 20일 오후 9:25, 노명환 교수님 :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까?

2018년 5월 20일 오후 9:25, 회원님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9:25, 안소연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5, 김부미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5, 양준호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5, 심은경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5, 심서영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5, 박시현 : 인식에 투영된 상을 언어로 해석(재구성)하는 것이군요!

2018년 5월 20일 오후 9:27, 노명환 교수님 : 그렇지. 그런데 해석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조건 인간과 세계의 조건, 실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2018년 5월 20일 오후 9:27, 지수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27, 안소연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7, 심은경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7, 박고은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27, 회원님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7, 김다빈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7, DoSoon*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8, 노명환 교수님 : 자, 지난 시간에 한 것 다시 상기해 보게. 기억이 무엇이냐. 현재의 의식에 투영된 과거.

2018년 5월 20일 오후 9:28, 양준호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8, Psh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28, 박시현 : 네,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9:28, 노명환 교수님 : 현재의 의식에 투영된 과거가 말을 (구술자의 진술을) 통해 말해지지, 표현되지.

2018년 5월 20일 오후 9:29, 박시현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9:30, 노명환 교수님 : 이것이 구술이잖아. 우리가 과거라고 알고 느끼고 사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하이데거의 해석학이야. 모든 존재는 이 과정 (메커니즘)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지. 이해될까?

2018년 5월 20일 오후 9:30, 심은경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30, 회원님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0, 심서영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0, DoSoon*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0, 안소연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0, 양준호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0, 김다빈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31, 김부미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1, 노명환 교수님 : 아리랑이 무엇이야? 각종의 아리랑 기록이 무엇이야?

2018년 5월 20일 오후 9:32, 노명환 교수님 : 시현이가 진관장님의 아리랑 기록 수집과정은 참가자들의 또는 진관장님의 개념적 구성 과정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바로 이것이 하이데거의 해석학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2018년 5월 20일 오후 9:33, 박시현 : 진 관장님께서 수집하신 기록들 모두가 '아리랑'이고, 그 모든 것들이 '부분'인 동시에 하나의 '개별적'인 아리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4, 노명환 교수님 :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 공론장, 푸코의 '언어와 사물', 에피스테메 등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2018년 5월 20일 오후 9:34, DoSoon* : 네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4, 박시현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4, 안소연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4, 회원님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9:34, 노명환 교수님 : 시현이가 지금 말한 것 다음 수업에서 설명할게.

2018년 5월 20일 오후 9:34, 지수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5, 심은경 : 네 아리랑에 대한 당시의 의식, 에피스테메가 투영된 과거가 반영된 것이 아리랑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6, 노명환 교수님 : 포스트모던 철학에서 언어가 중심에 서고, 언어로의 전환 (linguistic turn) 까지 가는데. 기호학이 나오고. 이러한 사유의 원조가 비트겐슈타인이고 보다 정밀한 저수지의 철학을 만든 사람이 하이데거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중요.

2018년 5월 20일 오후 9:36, 박시현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9:36, 양준호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7, 심은경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37, 노명환 교수님 : 물론 '언어로의 전환'이라는 극단적 사고는 경계를 해야지. 이해대 해서도 다음에 설명할게

2018년 5월 20일 오후 9:38, 노명환 교수님 : 은경이가 언급한 대로 아리랑 기록에서도 개념적 구성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철학의 원 뜻의 중요성은 인정하게 되는 것이야.

2018년 5월 20일 오후 9:40, 노명환 교수님 :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언어로의 전환' 문제를 소쉬르의 기호학 기표와 기의로 나누는 것에서 이 중요성을 살리면서 극단적인 '언어로의 전환'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고.

2018년 5월 20일 오후 9:40, 노명환 교수님 : 이에 대해서 다음에 더 설명.

2018년 5월 20일 오후 9:41, 박시현 : 넵넵 :)

2018년 5월 20일 오후 9:41, 회원님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41, 김부미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41, 박고은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41, 심은경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42, DoSoon*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42, 노명환 교수님 : 그러면 후설의 현상학에 대해 더 설명해볼게.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았고, 하이에데거의 스승이고.

2018년 5월 20일 오후 9:42, 박시현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44, 노명환 교수님 : 후설은 칸트의 인식론을 객관적으로 만들고자 했어. 그는 수학자였거든. 그는 모든 현상은 우리 인간의 인식(체계)의 투영인데, 그 인식체계(구조)를 엄밀하게 하면 그 엄밀해진 인식 체계에 투영된 모든 현상이 객관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어.

2018년 5월 20일 오후 9:46, 박시현 : 객관성을 중요시켰군요...!

2018년 5월 20일 오후 9:46, 심은경 : 네 !

2018년 5월 20일 오후 9:46, 김부미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47, 양준호 : 스승과 제자가 다른 생각을 했네요 ~

2018년 5월 20일 오후 9:48, 노명환 교수님 : 현상학은 현상에 관한 학문인데, 모든 현상은 인식의 결과이니, 결국 인식학이야. 그런데 그 인식을 엄밀하게 해야 한다 했지. 그 방법의 하나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말을 통해, 인식의 결과가 말로 표현) 할 수 있다 했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것을 발견해 가고 그 다른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 공동의 인식, 그 인식에 비친 현상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2018년 5월 20일 오후 9:48, 박시현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9:48, 양준호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48, 회원님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48, Psh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48, 김부미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49, 심은경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49, 김다빈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50, 안소연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50, 지수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50, 노명환 교수님 : 준호 말이 맞아. 후설은 이러한 생각을 열심히 했어. 후에 그는 그의 이론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음을 알아. 그러나 생활세계에서 이 의사

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을 통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것이 하버마스에
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언어가 .인식을 통한 존재를 결정한다 할 때, 후설의 소통에 의한 방
법은 민주주의적인 것의 효시지.

2018년 5월 20일 오후 9:51, 노명환 교수님 : 한스 봄스의 위원회를 통한 평가 이론도 이 후
설의 영향.

2018년 5월 20일 오후 9:52, DoSoon*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52, 양준호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52, 심은경 :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2018년 5월 20일 오후 9:52, 박시현 : 후설의 철학이 기록학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군요
ㅎㅎ

2018년 5월 20일 오후 9:53, 노명환 교수님 : 개념적 구성과 공론장 이론에 대해 대략 철학
적 사조를 이해할 수 있지? 이제 퍼스의 기호학과 연결하여 더 설명을 해야겠는데, 시간이 다
되었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53, 박시현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9:53, 김부미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53, 안소연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53, 회원님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54, 김다빈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9:55, Psh : 넵

2018년 5월 20일 오후 9:55, 지수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9:56, 양준호 : 넵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9:58, 노명환 교수님 : 이전에 존재론과 인식론이 평행선을 달렸는데,
이들이 존재론과 인식론을 언어를 끌어들이 엮어낸 것이야. 비트겐슈타인이 그 태두. 언어학
자 소쉬르의 기호학은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런 철학사를 살펴보는 것은 개념적 구성 때문인
데. 개념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니, 진관장님의 그동안의 활동이 잘 포착되고 이해되는
것 같지 않았어? 다른 분의 이러한 경험을 들어도 마찬가지로 사유할 수 있을 것이야? 우리
는 상황 상황 속에서 기록의 가치를 만드는데. 존재론으로서의 기록만이 아니라, 인식론으로
서의 기록만이 아니라, 앞의 철학자들처럼 이 둘의 연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호학을 통해.
그런데 퍼스는 앞에서 말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개념을 그의 기호 개념에 적용해. 기록
학의 컨티뉴엄 이론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2018년 5월 20일 오후 9:59, 노명환 교수님 : 이렇게 보면 철학 어려울 것 없고, 뭔가 이해하
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네. 그지. 그 정도 철학과 친해지게. 머리 아픈 상태로는 절대 아니
고.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0, 심은경 : 네 감사합니다 :)

엮어서 생각하니 보이는 것의 이면을 보다 넓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1, 이해란 : 철학에 대해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여
러 철학자들의생각과 기록의 연결성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어렵기보단 재미를 많이 느꼈
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2, 안소연 : 네 교수님!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철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2, 박시현 : 존재가 언어를 통해 인식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졌

었네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개념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 오늘 명쾌한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3, 박고은 :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철학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철학과 기록이 이렇게 연결된다는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ㅎㅎ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3, 노명환 교수님 : 한가지 앞에서 후설의 인식체계를 이야기 했는데, 그는 우리의 인식체계 (의식구조)는 '생각 대상'과 '생각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 이는 구성주의 이론의 선구라 볼 수 있고. 물론 후설이 선구자다 하고 말할 필요는 없고. 퍼스의 기호와 인간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기호작용, 해석작용)도 이 연관에서 이해하게. 퍼스의 해석의 의미를 하이데거의 해석학 개념에서 보아야 할 것이야.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3, 심은경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3, 회원님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4, 김다빈 : 수업때 배운 개념을 여러번에 걸쳐 보강을 통해 복습하면서 처음엔 난해했던 이야기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이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4, 박시현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4, 박고은 : 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4, DoSoon* :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4, 노명환 교수님 : 그래 여기 까지 하계. 다음 시간 이경훈선생님 강의 들으면 이 내용을 대상으로 또 그 다음 주 설명할께. 여러분, 넘 고맙고.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또 있을까? 넘 넘 훌륭해. 잘 지내고.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5, 양준호 : 평소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5, Psh : 네 감사합니다 ㅎㅎ 철학자들의 이론과 기록학과의 연결속에서 기록의 영역이 확장 됨을 느끼고 아키비스트의 역할 또한 중요해짐을 매번 느낄수 있게 되었습니다 ㅎㅎ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5, 심은경 : 네! 수업 때 뵈겠습니다 :)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6, 김부미 : 철학과 기록학을 연계해서 생각해볼수있어서 식견이 넓어지는거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6, 회원님 :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경훈 선생님의 강의도 기대됩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6, 박시현 : 네, 교수님과 모든 선생님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6, 지수 : 감사합니다! 수업에서 뵈겠습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6, 박고은 : 네 수업 때 뵈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7, 이혜란 : 담주금요일에뵈옵!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7,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이경훈선생 강의를 듣고, 정보를 얻는 것으로 하면 좋겠어. 현장 실무자로서. 해석은 그 후 나와 함께. 진용선관장님은 이미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는 분이고.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8, 양준호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8, 박시현 : 네, 명심하겠습니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8, 김다빈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8, 안소연 : 네 알겠습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8, 회원님 : 네~ 알겠습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8, 김부미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10:09, DoSoon*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0일 오후 10:15, 노명환 교수님 : 시현이가 앞에서 한 아래의 말 강조하고 싶고. 메타데이터 설정이 그렇고. 이러한 철학에서 보면 개념적 구성을 통해 아키비스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 물론 '언어로의 전환' 논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는 '하이데거의 해서학에 의거한 노명환교수의 해석' "기록에 대한 기술 자체가 그 기록의 의미를, 개념을 새롭게 구성해나간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2018년 5월 20일 오후 10:24, 박시현 : 네 교수님! 기록의 개념적 구성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ㅎㅎ

2018년 5월 20일 오후 10:30, 양준호 : 개인에 머무는 가치, 기록일지라도 아키비스트들의 노력으로 기록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그 가치(정체성)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군요 세계로 우주로 ~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1일 오전 9:12, 노명환 교수님 : 준호, 바로 바로 그것 !!! 작은 시.공간에서 생산되어 보존되는 기록도 끊임없는 개념적 구성을 통해 우주로 연결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아키비스트가 있다. 컨티뉴엄 이론이 그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대에서는 매우 실질적으로 그러한 컨티뉴엄이 발생할 수 있다. 업워드 교수는 시공간적으로 작은 업무 현장에서 생산된 기록이 끊임없이 개념구성되어 (끊임없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변화에 의해) 우주로 통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측면을 '성리학적 구성주의'로 설명하고. 6월 1일 설명하마. 업워드 교수는 이 개념을 매우 반기고. ("I am excited".) 성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렵고 영어로 된 글들을 개략 읽는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철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아키비스트로서 우리의 가치관, 신념, 철학, 사명감, 자세, 자부심 (진용선관장님처럼) 등을 위해 중요하다 보고.

2018년 5월 21일 오전 9:29, 노명환 교수님 : 여기에서 끊임없는 개념적 구성이란 기록 (기록 관련 환경)과 아키비스트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구성 과정을 말하고. 기든스가 말하는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구성 과정처럼.

2018년 5월 21일 오전 9:30, 노명환 교수님 : 기록 (기록 관련 환경)과 아키비스트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구성 과정

2018년 5월 21일 오전 9:30, 노명환 교수님 : '사이의'를 넣어서 이해.

2018년 5월 21일 오전 9:32, 노명환 교수님 : 나는 이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구성 과정이 퍼스의 기호학 처럼 일어난다고 보고.

2018년 5월 21일 오전 9:35, 노명환 교수님 : 이제 내 논문을 끝까지 읽어보아 다오. 6월f 1일 설명하겠고.

2018년 5월 21일 오전 9:39, 지수 : 알겠습니다 교수님 :)

2018년 5월 21일 오전 9:43, 박고은 : 네 교수님~

2018년 5월 21일 오전 9:48, 노명환 교수님 : 어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개념을 설명했는데, 인간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존재이고, 시간의 어느 시점에서 죽게되는 유한한 존재이다. 시간의 변화가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데,그래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크

게 미치게 된다. 우리는 보통 과거가 인간의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고. 그런데 하이데거는 아직 있지 않은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미래 어떤 것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죽어서 지옥 갈 것을 두려워 해서 지금 잘 살아야 겠다고 생각하는 것.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잘못된 과거 때문에 괴로워 하는 것을 생각해서 현재 잘 하려고 하는 것 등. 나는 하이데거의 이 관점을 조선시대 성리학적 세계관의 기록관리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적용해 본다. 성리학적 세계관에 의거하여 후손의 평가를 위해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후손의 이해 평가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리학적 세계관에 충실하면서 오늘을 잘 살고자 한다. 이것은 당시 정치,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를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좋은 체제유지, 통치의 수단이고, 자신들도 (왕도) 그 체계 속에서 규정을 받는다.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생각했고 (특히 정도전). 내가 볼 때, 성리학적 세계관에 의한 기록의 개념적 구성, 이것이 조선시대 기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근본 이유이다. 나는 '당시 기록관리 정신이 투철해서 그랬다' 하는 설명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제 "성리학적 세계관과 조선시대 기록관리" 논문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제 다시 한번 읽어 줄까?

2018년 5월 21일 오전 9:49, 노명환 교수님 : 송지수, 박고은 고맙고.

2018년 5월 21일 오전 9:51, Psh : 넵 교수님 ㅎ

2018년 5월 21일 오전 9:52, 박고은 : 넵!

2018년 5월 21일 오전 9:58, 심은경 : 네 교수님 :)

2018년 5월 21일 오전 9:59, DoSoon* : 네~

2018년 5월 21일 오전 9:59, 김부미 : 넵~

2018년 5월 21일 오전 9:59, 회원님 : 네~ 알겠습니다.

2018년 5월 21일 오전 10:00, 심서영 : 네~!

2018년 5월 21일 오전 10:05, 노명환 교수님 : 하이데거는 '말의 힘', '말은 정신이다'를 강조했다. 여기서 말은 하이데거 방식의 '해석'을 뜻하고, '개념적 구성'을 말하고.